

삼성디스플레이 투자·상생협력 협약식

수천억 적자-중국 맹추격 속 미래투자 '오너의 결단'

SAMSUNG

삼성전자

미래 먹거리 선점 위한 투자
대내외 악재에도 차질없이
'초격차 전략' 유지 재차 주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자사업과 시스템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에 이어 디스플레이 기술에 톡톡 투자를 단행하며 미래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6년 삼성전자 경영 전면에 나선 후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있다. 2016년 11월 자동차 부품 사업 진출을 위해 10조 가까운 자금을 투입해 하만을 인수합병(M&A)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주춤했지만 지난해 집행유예로 나온 이후 다시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4월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반도체 비전 2030'을 공개, 133조원의 투자를 진행했다. 지난 9월에는 일본 통신사 KDDI에 5G 통신장비 공급을 확정했다. 약 20억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0일 오전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신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이 부회장의 미래투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까지 확장됐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0일 충남 아산의 탕정사업장에서 총 13조1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는 이 부회장의 중장기 투자·고용 방안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지난해 초 한소심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대규모 투자 방안을 계속 내놓으며 '미래

먹거리' 발걸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석방 이틀 후인 지난해 2월 7일 삼성전자가 대표이사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평택 반도체 단지에 제2생산라인 건설을 위한 예비투자 안건을 의결한 게 '신호탄'이었다.

이전부터 검토되던 사안이었으나 이 부회장 석방 직후 이를 전격적으로 결정하면서 '옥중 경영구상'을 곧바로 구체화할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런 관측을 증명이라도 하듯 같은 해 8월에는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

해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단일 그룹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고용 방안이었다.

특히 인공지능(AI), 5G, 바이오, 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어 올 4월에는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생산기술 확충에 총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만 5000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비전 2030'을 선포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하락,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 규제, 자신의 재판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검찰수사 등 대내외 악재에도 앞서 발표한 투자·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전자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중장기 투자·고용 계획을 언급한 뒤 "흔들림 없이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면서 '초격차 전략'을 재차 주문했다.

또 같은 달 경기도 수원사업장에서

주재한 IT·모바일(IM) 부문 사장단 회의에서도 "어떤 경영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 투자 계획도 "긴 안목으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 부회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TV 시장점유율 13년 연속 1위, 스마트폰용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80%대 등의 현 상황에 만족할 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선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주마가편'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에 R&D 비용으로 10조원 넘게 투입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계 관계자는 "투자는 기존 사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신산업 분야에서 리더십을 선점하기 위한 성장 전략의 기초"라면서 "이 부회장이 마지막 판결인 파기환송심을 앞둔 상황에서도 국내외에서 경영행보를 이어가려는 동시에 잇따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는 것은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文 대통령 "디스플레이 산업,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 출발점"
"기업들의 노력에 정부도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원 규모 신규 투자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개최된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이번)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열린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보고회에서 해양신산업 분야 인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7년간 400억

원 대규모 예산의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투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테스트베드' 천안 유치, ▲향후 4년간 2000명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산업인력 양성 등을 약속했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을 만들자"는 (문 대통령) 말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됐다"며 "세계 경기가 둔화하고 여러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차세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부회장은 "약속드렸듯이 차세대 핵심 대형 디스플레이에만 13조원 이상의 투자를 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인의 소임을 다하겠다"라며 "문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함께 나누고 같이 성장하자'는 말씀이야말로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 협약식 참석 후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로 충남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과 충남경제인들은 오찬 자리에서 철도·해양수산 등 대정부 건의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 후 충남도청에서 '해양수산 신산업 발전전략(충남 신미래전략)'을 양승조 충남도지사로부터 직접 보고 받기도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고속도로 휴게소 제로페이 도입 5개월

하루 평균 이용량 1건도 안돼... "세금 낭비"

도입 휴게소 24곳 결제 일평균 0.35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2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하루 평균 이용량이 1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조한 이용 실적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서비스를 적용하는 휴게소가 늘어날 예정이어서 세금 낭비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김상훈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

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후 5개월간 제로페이를 도입한 전체 휴게소 24곳의 월평균 결제 건수는 10건, 일평균 결제 건수는 0.35건이다. 제로페이 결제 전체 건수는 1245건으로 전체 결제 건수 1058만건의 0.011%다. 화성휴게소를 제외하고는 23곳 모두가 5개월간 하루 평균 1건도 제로페이가 사용되지 않았다. 충주휴게소의 경우 5개월 동안 단 한 명의 이용객도 없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국민연금 月 130만원 이상 수령자, 3년 새 4배

소득 높고 가입 기간 긴 수급자 증가

국민연금을 월 13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3년 새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30년을 넘어 안착하면서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긴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6년 336만4000명에서 2019년 6월 386만7000명으로 14.9% 증가했

다.

노령연금 금액별로는 같은 기간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94만8000명에서 85만 9000명으로 줄었다. 반면 20만원 이상 수급자는 수급 금액별로 모두 증가했다.

특히 13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증가 폭이 컸다. 2016년 1만5660명에서 2019년 6월 6만7409명으로 4.3배 늘었다.

고액 수급자일수록 더 큰 폭으로 증가해 16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수급자는 같은 기간 330명에서 6074명으로 18.4배,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0명에

서 44명으로 늘었다.

노령연금 금액이 많은 구간일수록 가입 기간 증가 폭도 컸다. 노령연금액과 가입 기간 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의미다.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 금액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을 보면 ▲20만원 미만은 72.4개월 ▲20만~40만원은 134.2개월 ▲40만~60만원은 193.2개월 ▲160만~200만원은 325.5개월 ▲200만원 이상은 299.9개월 등으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령연금 금액이 많았다.

/김희주 기자 hj89@